

'근원으로 회귀' 제시한 불교 인문학의 지침

불교로 읽는 古典

원효의 <대승기신론소>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자기 자신을 믿는 것

"중생으로 하여금 의심을 제거하고/삿된 집착을 버리게 하여/대승의 바른 믿음을 일으켜/부처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마명) "이 눈을 지은 대의는 두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위의 반은 아래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함임을 밝혀놓고, 아래의 반은 위로는 불도를 넓히기 위함을 나타냈다. 중생의 길이 생사의 바다에 빠져 열반의 언덕에 나아가지 못하는 까닭은 다만 의심과 사집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하회중생의 요체는 의심을 제거하고 사집을 버리게 하는 것이다." <원효>

인문(人文)이란 말에는 인간의 무늬와 고전의 향기가 배어 있다. 즉 '인'에는 인간이 버려온 가치와 의미가 담겨 있고, '문'에는 인간이 쌓아온 고전의 냄새가 쌓여 있다. 때문에 인문의 정신을 담고 있는 고전은 '어제의 옛 책'이 아니라 '내일의 새 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는 고전 속에서 '있는 것과 있어야 할 것 사이의 거리의 최소화'와 '살아있는 것들의 생물학적 조건'의 동일성이라는 '보편성' 내지 '동시대성'을 발견한다. 이 동시대성 내지 보편성은 셀 수 없는 시간과 쉼 수 없는 공간의 비파적 갈라짐을 견디고 살아남은 고전의 주요 특성이다.

원효(617~686)는 인간학과 고전학을 아우른 인문학자였다. 그의 <대승기신론소>는 마명의 <대승기신론>을 독창적 해석으로 풀어낸 인문고전이다. 원효에게는 이 저술 외에도 약 7종의 <대승기신론> 주석서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현재는 청년작인 <대승기신론별기>와 만년작인 <대승기신론소> 두 종만이 남아 있다. 원효는 이 저작을 통해 '일심(一心) 혹은 '진여(眞如) 또는 '대승(大乘)의 철학을 입론하였다. 때문에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논서'인 <대승기신론>을 원용하여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일심의 지형도로 펼쳐낸 그의 <대승기신론소>는 인문학의 수다라라고 할 수 있다.

<대승기신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 세계의 우주만물인 존재(法)와 그 일체를

머물게 하는 궁극존재가 모두 진여(眞如)의 발현이자 표현이라고 논한다. 여기서 대승은 '진여' 즉 '참으로 그러함'을 가리킨다. 진여는 '존재의 바탕' 또는 '존재의 기반'이란 뜻에서 '법체(法體)라 일컫고, 그 법체를 '진여' 혹은 '진여법신'이라 부른다. 해서 이 논서는 진여 자체(體)와 진여의 드러난 모습(相)과 진여의 현상적 활용(用)을 밝히고 있다.

마명은 대승 즉 진여의 체상용(體相用)을 밝힘으로써 진여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 이 책을 지어 '중생심이 곧 진여심'이며 '진여를 믿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임을 역설한다.

버릴 것도 세울 것도 없이...

우리는 삶 속에서 버릴 것과 세울 것을 구분하면서 살아간다. 버릴 것이란 쓸모없는 것을 가리키고, 세울 것이란 버려둘 수 없는 것을 일컫는다. 우리가 눈앞의 현상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쓸모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버려둘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상적 삶에서는 버릴 것과 세울 것 모두 이루어진다.

원효는 <대승기신론소>에서 대승의 다른 이름인 진여에 대해 "버릴 것이 없음을 '진(眞)이라 하고, 세울 것이 없음을 '여(如)라고 한다"며 "이 진여의 체는 버릴 만한 것이 없으니 일체법이 모두 다 참되게 되기 때문이다. 세울 만한 것도 없으니 모든 법이 다같이 같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그는 "그러나 일체법은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진여(眞如)라고 부르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는 버릴 것이 없음을 세울 것이 없음에 대해 섬세하게 분석해 내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반야종관의 공관(空觀)과 유가 유식의 가관(假觀)을 기신 진여의 화관(和觀)으로 통섭해 가고 있다.

원효는 "대승기신론"은 세우지 아니함이 없으며, 깨뜨리지 않음이 없다. 반면 용수의 <중관론>과 <십이문론> 등처럼 모든 집착을 두루 깨뜨리며 또한 깨뜨린 것도 깨뜨려 깨뜨리는 것과 깨뜨려진 것을 도리어 허용하지 않아 '보내기만 하고 두루 미치지 못하는 답론(往而不論)과 무착의 <유가론>과 <십대승론> 등처럼 깊고 얇은 이론들을 온통 다 세워서 법문을 판별하면서 스스로 세운 법을 두루 버리지 아니하여 '주기만 하고 빼앗지 못하는 답론(與而不奪論)이라고 평가하면서 공관과 가관을 넘어 자신의 화관(和觀)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그는 <대승기신론>은 슬기롭기도 하고 어질기도 하며, 그윽하기도 하고



원효 스님의 대표 진영. 원효 스님은 <대승기신론소> 등 독창적 해석이 담긴 주석서를 발간했다. 스님은 당대의 뛰어난 수행자이자 인문학자였다.

대승불교 입문서이자 당대 사상 집결된 고전

"중생은 一心의 존재" ... 붓다로 나아가는 길 제시

널리도 하여, 세우지 아니함이 없으면서도 스스로 펼쳐내고, 깨뜨리지 아니함이 없으면서도 도리어 허용하고 있다. '도리어 허용한다는 것(還許者)은 저 가는 자가 가는 것이 다하여 두루 세움(往極而 立)을 나타내며, '스스로 펼쳐낸다는 것(自遣者)은 이 주는 자가 '다 주면서(두루) 빼앗음(窮與而奪)을 밝히나, 이것은 모든 논서의 조종이며 모든 정론을 평정시키는 주체라고 일컫는 것이다.

그리하여 원효는 "대승기신론"은 펼쳐 보면 '헐 수 없고 가이 없는 뜻(無量無邊之義)으로 종지를 삼고, 합쳐 보면 이론 일심의 법(二門一心之法)으로 요체를 삼고 있다"며 "이문의 안은 온갖 뜻을 받아들여도 어지럽지 아니하며, 가없는 뜻은 일심과 같아서 혼용되어 있다"고 한 뒤 "그러므로 펼침과 합침이 자재하며(開合自在), 세움과 버림이 결림이 없어서(立破無碍), 펼쳐도 번잡하지 않고, 합쳐도 협착하지 않으며, 세우도 연음이 없고, 버려도 잃음이 없다"며 이것이 '마명(馬鳴)의 묘술이며 이 논 종체' 이라고 했다.

자유로운 인간이 되는 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인 우사인 볼트는 100미터 달리기에서 9.58초를 기록했다. 그는 인간의 한계치를 극복해 가며 1초에 10미터를 넘게 달리는 위업을 달성하였다. 당시 스타트 라인에 선 주자들은 심판의 총소리에 맞추어 출발선을 넘었다. 총알이 실선을 그리며 나아가는 것처럼 모든 주자들의 마음 또한 끊어지지 않는 실선을 그리며 나아갔다. 그 결과 우사인 볼트 등은 대기록을 세웠다. 만일 주자들의 마음이 끊어짐이 있는 점선을 그리며 나아갔다면 그 사이로 갖은 번뇌가 밀려들 대기록의 달성은 어려웠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실선과 같이 지속되는 해맑고 깨끗한 마음(真心如門)과 점선과 같이 단절되는 물들과 때문에 마음(心生滅門)이 공존한다.

<대승기신론>에서 '물들과 때묻은 마음'이란 찰라생 찰라멸 하는 마음의 틈새로 침투한 번뇌로 오염된 마음이다. 반면 '해맑고 깨끗한 마음'이란 불생불멸의 감춌을 입고 생명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그런데 원효는 심층 마음과 표층 의식의 배대에 있어 독자적 시각을 보여준다. 그는 심진여문과 심생멸문, 그리고 심생멸문 내의 각(覺)과 불각(不覺)의 구도 아래 본각(本覺)과 시각(始覺)과 불각(不覺)의 관계를 통해 중생이 부처가 되는 길을 제시하였다.

원효는 "시각이 불각에 대해 있고, 불각이 본각에 대해 있으며, 본각은 시각에 대해 있다. 서로 상대해 있기에 무자성이다. 무자성은 각이 있지 않은 것이다. 각이 있지 않은 것은 서로 상대해 있기 때문이다. 서로 상대해서 성립하므로 각이 없는 것이 아니다. 각이 없지 않으므로 각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며, 자성이 있어서 각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원효는 무명(無明)으로 념(念)이 일어나는 '무명업상'과 마음이 자신을 찾아 바라보려고 하여 능히 보는 모습인 '능견상' 그리고 그 눈에 보여지게 하는 경계로서 나타난 모습인 '경계상'의 삼세상(三細相)과 나를 개별 자아로 잘못 보는 모습인 '지상'과 잘못된 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인 '상속상', 유근신의 나는 자신과 자신 밖의 세계를 자와 타, 주와 객으로 이원화해서 집착하는 '집착상'과 이러한 분별에 사용된 언어에 매인 모습인 '계명자상', 의식의 분별 집착에 따라 업을 짓는 모습인 '기업상'과 그 업에 따라 고통의 보를 받는 모습인 '업계고상'의 육추상의 구도 아래 망념의 생주이멸(生住異滅)을 논한다. 그리고 그것을 의식(분별사상)과 의(말나식)과 아뢰야식의 작용, 다시 그것을 상응유(執, 不斷, 分別)와 불상응유(現色, 能見心, 根本業)으로 논하고 있다.

<대승기신론>은 진여와 무명의 구도에 입각하여 심층 마음과 표층 의식 사이의 관계를 엄법혼승(染法薰習)과 정법혼승(淨法薰習)의 이중 구조로 보여주고 있다. 엄법혼승은 본래 청정무구한 진여가 무명에 의해 가려짐으로써 망심인 업식이 작동하면서 허망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반면 달리 정법혼승은 오염된 현상세계에 매인 채 살아가는 중생의 망심 안에 바탕으로 남아 있는 진여성이 중생으로 하여금 집착과 분별을 버리고 청정한 마음 바탕 즉 진여 자신에게로 되돌려 들이는 과정이다. 원효는 6추상의 잘못된 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속상을 의식의 이상(異相)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것은 경계상과 능견상을 아뢰야식의 주상(住相)으로 간주하는 법ظ과 다른 지점이다.

삿된 집착의 제거와 발심 수행

불각은 진여라는 존재 즉 진여법이 하나임을 모르는 근본불각과 이 불각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불각인 지말불각으로 이루어진다. 원효는 이 근본무명에 의해 일어나는 지말불각의 3세상과 그 경계상에 의해 생

겨나는 6추상을 각 의식에 배대해 보여준다. 그는 "이 중 앞의 세 가지 상은 미세하여 아뢰야식의 지위에 있고, 뒤의 여섯 가지 추상은 나머지 칠식이다. 다만 저 근본무명에 대비하면 모두 근본무명으로 인해 일으켜진 지말이기에 통틀어 지말불각이라 부른다"고 하였다.

<대승기신론>에 의하면 아뢰야식에 의해 형성된 경계상을 인연으로 하여 마음 표층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상은 아는 상인 지상(智相)이다. 원효는 이 지상을 말나식의 작용으로 보아 "육추상 중의 처음 하나의 상은 제7식이다"고 했다. 이것은 아뢰야식이 그러한 경계상의 바탕 위에 가장 먼저 작동하는 식이 바로 주관의식 혹은 자아의 식인 제7말나식이기 때문이다.

<대승기신론>의 귀경계처럼 "대승의 바른 믿음을 일으켜/ 부처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자" 하려면 "중생으로 하여금/ 의심을 제거하고 삿된 집착을 버리게 해야"만 한다. 삿된 집착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발심하여 수행해야만 한다. 일체의 삿된 집착은 개별 실체로서 대승을 처음 배우는 이가 일으키는 '내가 있다는 견해(我見) 즉 자집(我執)에서 비롯된다. 여기에는 '인간에 내가 있다는 견해(我見)와 '세계에 내가 있다는 견해(法我見) 즉 법집(法執)이 있다. 인아견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공(空)에 대한 잘못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하고, 유(有)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성이 일으키는 법아견 즉 일체법이 각기 체성이 있다는 계략을 떨쳐 내기 위해서는 오음법을 자성이 나지 않는 것이요, 멸함도 없으며, 본래 열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제시한 뒤에 여러 부처가 증득한 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모든 보살이 어떻게 발심(信成就·解·行·證)하고 성불하기로 결정된 근거(正定聚)에 들지 못한 중생에 의거해 어떻게 심신을 수행(施·戒·忍·進·止·觀)해 나아가는 지에 대해 밝히고 있다. 나아가 그 이익을 들어 수행을 권장하고 있다.

이처럼 <대승기신론>을 풀어낸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는 현상 세계를 형성하는 중생의 생멸심 안에 불생불멸의 진여심 즉 여래 법신이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 여래법신 안에서 중생은 모두 일심을 지니고 있는 하나의 존재라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

따라서 <대승기신론소>는 중생이 지니고 있는 일심 즉 진여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밝혀낸 인문학의 슈트라이크 바이블이다. 원효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한 영원한 대자유인' 즉 붓다로 나아가는 길을 가장 잘 드러낸 인문학자였다. 우리가 <대승기신론소>를 읽는 이유 또한 '일심의 근원인 붓다로 돌아감' 즉 '하나에 대한 그윽함' 때문이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아픈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됨,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썩음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썩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 발이차신분
- *오심건,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현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심건조기,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